

전문가풀 회의결과 보고서

1. 개요

1. 일시 : 2013. 5. 9 (금) 16:00~18:00
2. 장소 : KIEP 7층 회의실(기존 11층에서 변경)
3. 발표자 : 김화년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김달관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 교수

4. 참석자

권기수	팀장	(KIEP)
김진오	전문	(KIEP)
박미숙	전문	(KIEP)
임태균	박사	(KIEP)
이시은	연구원	(KIEP)
김종혁	전문	(KIEP)
유영식	박사	(단국대)
유준구	교수	(국립외교원)
오성주	연구원	(포스코 경영연구소)
박정석	연구원	(포스코 경영연구소)
김기현	교수	(선문대)
안성희	과장	(KOTRA)

5. 제 목

- "2013년 중남미 대선 결과 및 정세 전망: 베네수엘라 & 에콰도르를 중심으로"

II. 주요 발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1. 2013년 에콰도르의 대통령 선거

- 2013년 2월,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2017년 까지 대통령 직을 수행하게 됨.
 - 코레아 대통령의 득표율은 57.17%였으며 여당인 ‘조국동맹 (Alianza PAIS)’당 역시 절대다수당을 차지하게 되었음.
- 2013년 코레아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이전에 무르익은 정치 사회적 상황에서 나온 결과임.
 - 에콰도르에서 1979년 민주화의 이행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의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원주민 운동(시민사회 운동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운동)이 발생하여 에콰도르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킴.
 - 이후 2000년 초반에 원주민 기반이 사라지며 점차 다양한 중산층 시민사회의 기반으로 옮겨갔으나 여전히 사회적 구심점은 없었으며 이후 코레아가 2006년 에콰도르 사회에 등장하게 됨.
- 또한 1999년 에콰도르에는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가 발생하였고, 2000년 달러 페그화를 실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원주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제적인 배경도 무시할 수 없음.
- 2009년 4월 헌법에 따라 대선과 총선이 있었는데, 제1차 투표에서 코레아가 52%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Alianza PAIS당은 의회에서 절대다수당이 되지 못하였음.
 - 2009년 선거 당시, 원주민 단체와 환경주의자들이 광산개발에 저항하면서 코레아 정부를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비난하기도 함.

- 또한 정부의 탄생 이후 에콰도르 내 진보 성향의 사회단체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음.
- 수자원 법(Ley de Aguas)에 대한 원주민 단체들의 시위, 교원노조의 저항, 대학 법에 대한 대학생들과 교수들의 시위가 발생한 바 있음.
- 부패 스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꼬레아 대통령은 큰 격차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으며, 이로써 진보적인 국가개혁인 수막 카우사이(“다양성 및 자연과 조화에 기초한 공생의 새로운 방식”)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기반이 마련됨.

2. 차베스 이후 중남미 경제의 향방

- 베네수엘라 신정부 등장으로 중남미 전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차베스 대통령의 사망은 중남미 정치지형의 변화와 더불어 자원, 통상, 투자환경 등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베네수엘라는 정치적으로 석유자원을 이용해 중남미 좌파를 결속하던 중심국이었음.
 - 특히 베네수엘라와 좌파벨트를 이루며 긴밀한 협력관계였던 볼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 쿠바 등 동맹국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차베스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중남미 국가에도 정치·외교 지형의 변화가 파급될 것으로 예상됨.
 - 반미기조가 약화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중남미의 반미는 뿌리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차베스 이후 반미 성향이 전반적으로 완화되면서 대미 관계가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 역내 교역은 브라질 주도의 역내 통합 지속됨에 따라 외국 기업들의 진출환경은 개선될 전망이다.
 - 에너지 공급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증가하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볼 경우 석유공급은 증가할 전망이다.
 - 브라질 경제의 약진과 베네수엘라 경제의 부진으로 브라질 모델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임.
- 중남미의 정치·경제의 변화에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중동에 편중되어 있는 건설·플랜트 수주를 다변화하고 신흥 소비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중남미의 변화를 이해하고 기회요인을 포착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플랜트 수주 비중을 보면 중남미는 여전히 낮음.
 - 한국의 대중남미 투자와 수출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글로벌경제 위기가 커지면서 신흥국의 위상이 증대되었으나, 여전히 위험은 상존함.
- 중남미 경제통상 협력의 중심은 메르코수르와 태평양동맹이 양대축을 이룰 것으로 보임.
- 중남미 국가들 간의 교역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다른 경제권에 비해서는 경제통합 정도가 여전히 약한 상황임.

- 베네수엘라의 영향력이 약화되며 브라질 중심의 역내통합과 경제통합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태평양 동맹이 중심이 되어 중남미에서 무역자유화 기조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반미기조 완화에 따라 미국의 석유수급은 더욱 안정될 전망이며 반면 페트로카리베 국가들은 베네수엘라의 지원의 감소에 따라 공급 불안이 가중될 전망이다.
- 중남미 경제는 볼리바르 동맹 연합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나서 좀더 실용적인 노선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 중남미에 전반적으로 실용·중도적인 정치성향과 미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III. 주요 논의사항

- 에콰도르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의 위기 앞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는 원주민 세계관에서 대안을 찾고자 하는 특징이 있음.
 -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의 원주민 운동은 정복·식민 이전 시대의 원주민 사회에서 자본주의 이후의 모델을 찾으려 함.
 - 브라질의 실바는 발전을 지속하며 약소계층을 돌보는 발전의 최적화를 주장하였음.

- 반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자본주의를 종식하는 대안적인 방식을 주장하였음.
- 원주민 운동은 사회의 부패와도 관련이 높았는데, 신자유주의 분위기와 더불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원주민이 사회 제반 문제에 불만을 가지고 봉기하게 됨.
 - 1997년 압탈라 부카람 투표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임기 중 부패로 인해 탄핵당하고 2000년 하밀 마우아드 대통령도 탄핵 당하였는데, 원주민 운동이 사회변화를 선도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음.
-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의 약화, 태평양 동맹(AP)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쟁구도로 새로운 중남미 경제 통합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 차베스 사후 브라질은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의 남미공동시장으로의 흡수를 장려하고 있음.
 - 태평양 동맹은 최근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역내 무역자유화를 선도하고 아시아와의 협력에 중심이 될 것이며 북미와의 협력 또한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파라과이나 에콰도르가 남미공동시장에 가입할지 눈여겨보아야 할 시점임.
- 중남미 투자는 브라질과 칠레에 집중되어있는 상황이며, 칠레 내에서 자원 개발 시 원주민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 중장기 인프라계획과 관련하여, 저소득 사회적 약자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관련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차베스 집권 이후 크게 감소하였는데 세계 1위의 매장량에 비해 생산량이 적어 향후 개발 가능성 및 개발 수명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차베스 집권 이후 석유산업을 국유화하고 생산을 통제하면서 원유 생산량이 21.8% 감소하였음.
 - 단기적으로는 마두로의 국정 장악력 부족으로 국영석유회사 PDVSA 내의 권력 쟁탈전이 확대될 경우, 불확실성이 커지며 원유 증산이 어려워질 소지가 있음.
 -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과 열악한 재정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베네수엘라는 중장기적으로 석유를 증산할 것으로 예상됨.
 - 중장기적으로 베네수엘라와 주변국의 석유개발이 증가하면 국제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투자를 받고 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
- 아직까지는 국유화와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분위기이나 중남미 전체로 볼 때 외국인 투자환경은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 2000년대 중남미 국가들의 기업 진출환경 수준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볼리바르 동맹의 경우 국유화와 자원민족주의가 심화되면서 투자환경이 급속히 악화됨.
 - 메르코수르 역시 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핵심산업 보호를 위한 투자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등 자유시장 경제정책을 중시하는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사업 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중남미에서 경제회복 지연과 함께 보호주의 정책이 심화되면서 기업 진출 환경은 악화되는 추세임.
- 미국 역시 베네수엘라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중남미 국가들과의 실질적 파트너십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국과 중남미간 관계개선으로 양자간 교역과 투자확대 등 경제 협력이 증진될 가능성이 있음.